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눅 15:11-32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꼭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공부를 하더라도 왜 하는지, 돈을 벌더라도 왜 버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본질인지 잊어버리게 되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왜 했는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 임마누엘남가주교회. 신앙생활의 본질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왜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언제라도 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그 동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왔다. 그렇지만 정작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어도 나랑 상관 없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든, 뭐를 하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심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제대로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한마디로 정체성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고백하려고 노력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가? 이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든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수 있겠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수 있음을 믿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의미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성경에 이 말씀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두 아들 이야기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한 것이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아들을 보고 잔치를 베풀어 준 아버지에게 큰 아들이 섭섭함을 느낀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깊이 들어가보면 사실은 훨씬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먼저 작은 아들이다. 작은 아들은 어느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산은 어떻게 분배하는가? 큰 아들이 두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은 아들에게 줘야 할 유산은 아들이 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재산의 1/3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이라는 선언이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죽어도 상관 없다는 것이었다. 왜냐면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서 내 몫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물, 내가 가질 재산만을 원했던 것이다. 그냥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다. 그냥 독립이 아니라 육신적 편안함과 보장된 독립을 원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한다. 만일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동기가 있다면 우리도 이 탕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에게서 속아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창세기 3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단지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나누어 주신 살림의 원어는 '비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비온이라는 단어는 생계를 유지할 자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삶을 지속시켜줄 어떤 것들을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와 같다. 작은 아들이 받을 부분은 1/3이었다.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땅을 파는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의 땅이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땅을 소유한 정도에 따라서 나의 지위도 결정되고, 나의 능력도 결정이 되고, 사회적인 평판까지도 다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땅은 사회적 위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곧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까지도 내려놓으라는 요구였던 것이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것이었다. 당시의 사회는 그런 아들은 당장 몽둥이로 때려서 내쫓아도 상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줄 2/3만 남겨 놓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 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들게 되면서 이 아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때 아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들이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아들로 받아들여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종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주겠지 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다. 아들의 계획은 이런것이었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가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이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그 당시 품꾼들은 어느정도의 재산을 소유할수도 있었고 일정한 금액의 품삯을 받으면서 일했다.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내가 그냥 아버지에게 돌아갈수 없으니 품꾼으로 일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 탕진한 것을 다시 내 힘으로 갚아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라도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한 것이 아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으면 그냥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 충분히 반성 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짓 하지 않을지 각서라도 받아놓고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하였다. 이 측은히 여겼다는 단어의 의미는 안타까운 마음이 내장에까지 이르러 일렁이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 즉 애끓는 상태, 그 아들을 보고 얼마나 불쌍하고 가슴이 아픈지 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달려갔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은 거의 몸을 내던져서 사랑을 표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사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까지 열어주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같은 우리가 한 일들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다.

이제 큰 아들을 볼 차례이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난줄도 모르고 오는 중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린 것을 알게 되었다. 하인을 통해 무슨 일인가 파악을 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 아들은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29절에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사실 그런 자기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섭섭해서 화가 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다. 그 이유는 큰 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의 유산인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잔치로 인해서 자신이 유산으로 받을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고기를 잘 먹지 않았다. 당시에 가축들은 삶을 영위하기에 너무나 중요한 수단들이었고, 고기는 너무나도 비싸고 귀한 별미였다.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사치였던 것이다. 거기에 살진 송아지를 잡는 다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버지를 파탄내고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에 분노했던 것이다. 할려면 염소나 잡지,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 주면서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축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노의 결과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 잔치 같이 하자고 간청을 하는데도, 그 부탁을 거절하고 있던 것이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 한 일이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그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유산을 허락없이 썼다는 것에만 꽂혀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 큰 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않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지 않은채 이 이야기를 끝이 난다.

우리는 탕자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공통적으로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에만 있었다. 둘다 아버지를 떠나 있는 것이다. 둘다 신분과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는 착실했고, 하나는 나빴다. 하나는 아주 못된 짓을 함으로써 그것을 이루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음으로 그것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큰 아들은 아버지가 청하는 잔치에 가지 않았다. 그 이유를 **29절 나는 한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결국 아버지와 이 큰 아들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은 나의 의로움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 살아왔고, 나도 할만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

습니까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두 아들은 다 길을 잃었다. 탕자는 작은 아들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타락으로 길을 잃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길을 잃은 것이다.

2. 집으로 돌아오라.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 한 것은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집은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다. 아들은 그저 품꾼으로 들어가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옷은 나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주셨습니다. 가락지는, 그 당시에 가문의 도장과 같은 것이었다. 가문의 상속자로서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작은 아들은 떠났지만 결국 돌아왔다. 겸손히 회개하고 잔치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다. 오늘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이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간청하신다. 하지만 아버지의 명을 잘 지킨 착실했던 큰아들은 길을 잃었다. 큰 아들이 이 잔치에 결국 참여했는지 않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이 비유를 마친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빠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답을 해보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5: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마태복음 8: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뿐 아니라 성경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잔치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잔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나의 살과 피라 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가?

3.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가지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사랑이 필요하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것같아 보이는 큰 아들은 지금 삐져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달려가서 입맞춤으로 데려오려고 하시고, 큰 아들은 간청함으로 데려오려고 하신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먼저 하나님을 찾을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이다. 복음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회개해야 한다. 그저 죄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어라는 단어는 돌이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정하고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선택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영접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라고 선포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영접한 사람은 기꺼이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내가 중심이었던 삶으로부터 돌아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단 한 것은 결국 회개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이다. 도둑질 하던 사람이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내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앞으로는 도둑질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따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모셨는데도 왜 우리들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어쩌면 회개의 결단이 없어서일 것이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아섬. 우리는 과연 나의 힘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삶으로 돌아섰는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얌전히 아버지 말을 잘 듣게 되면, 그 아들이 회개하고 잘 돌아왔다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큰 아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가? 앞서 보았지만 큰 아들도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고 있었지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한 동기 자체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 죄,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 의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큰 아들도 의로운 조건에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는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세 번째,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한다.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밥을 먹느냐고 컴플래인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길잃은 한 마리 양의 이야기를 하셨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 나섰다. 그리고 구해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신다. 누군가가 그 동전을 찾아 나서서 결국 찾아낸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탕자는 아무도 찾으러 가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냐? 탕자가 길을 잃었다면 누가 그 탕자를 찾으러 갔어야 하는가? 큰 아들이 갔어야 한다. 왜냐하면 큰 아들에게 두배의 유산을 주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집안 일을 책임지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복귀시키는 일은 형의 비용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동생 입장에서보면 이것은 공짜이고 은혜이지만 큰 아들 입장에서는 책임이고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하는 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냥 공짜가 아닌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실수 있는 그 단 한가지 방법, 대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큰 형은 불행히도 좋은 형이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큰 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땅에 오셔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 그 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었다. 좋은 옷, 좋은 반지, 그 이상의 것들을 다 가지실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 분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시는가? 좋은옷 대신에 옷이 찢어짐을 당하셨다. 영광의 반지 대신에 가시 박힌 면류관을 쓰셨다.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분은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무조건 공짜가 된 것이다. 대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주에 예언이라는 강단 메시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복음으로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것이었다.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번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부르고 계시고, 방주를 통해서 부르셨다.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갈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증인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증인의 본질은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한다. 증인들의 증인이 아니라 증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아버지여서 제 아들이 여러번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혼내키고, 벌도 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향한 제 마음과 사랑이 결코 작아지지도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고 내장까지 떨리는 안타까움으로 달려갔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란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실 복을 기대했던 사람일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다시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알고 있는가? 사실상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느끼는 것이다. 그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사랑이다. 정말 사랑하면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된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다. 세상의 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그때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신분인지 모르면 흔들리는 것이다.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내장 떨리는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상관없다. 아버지가 줄 유산과 상관없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은 큰 아들이 돌아왔는지를 기록하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잔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